

I.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

많은 중소·벤처기업은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능력이 미흡하여 동종기업의 상품을 복제, 판매함으로써 과당경쟁의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신기술 및 시장정보 부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연구기관·대학·기업지원기관과의 산학연관 관계를 통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 및 상품발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기술공급자 위주의 개발에만 그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중소·벤처기업은 독자상품 또는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을 향한 기술완성도 부족과 마케팅 능력 및 해외 유통망 부재로 인하여 글로벌시장 진출이 빈번히 좌절되고 있다. 특히 마케팅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여러 지원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나 수요기술 발굴에서 상품개발 보완, 시장정보 분석, 글로벌 시장진출까지 책임지는 전주기적 연계 활동은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는 여러 공공 성격의 기업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특정 사업목적에 국한된 제한적 활동으로 기업수요 부흥에는 미흡하며, 공공기관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환경 속에서 벤처생태계 지원에 시·공간적 한계를 갖고 있어 기업 마인드를

* (재)글로벌네트워크 사무총장(e-mail: kimhchul@k-gn.or.kr)

가진 민간주도기관의 출연과 역할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은 해외로부터의 단순한 원천기술 이전 및 제품의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의 해외 이전과 해외 기술의 국내 이전 등 글로벌 기술거래 중개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술 개발의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 기술과 해외 기술을 결합하여 응용·사업화하는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기술과 해외 자본을 결합하여 사업화하거나 중소·벤처기업의 M&A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투자 중개기능도 요구된다.

기업의 변화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지식, 기술, 지적재산권, 시장정보, 인재, 자본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Global C&D (Connect & Development)구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전 세계의 대학, 연구소, 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기술 특허, 기술개발 현황을 조사(Global Search)하여 Global Knowledge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기관에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뒷받침하는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또

한 세계권역별 기술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기술 수요와 기술공급간 공동연구과제(Global Cooperative R&D)를 도출하는 매칭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체제의 강화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도 대외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시도했던 상당수의 중소·벤처기업들은 대기업과 동등한 진출기회 미확보, 해외시장 정보 부족 및 비즈니스 관행 인식 미흡, 마케팅 경험 부족 등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

현재의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은 관련 부처 및 단체들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편적인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실효성 적은 일회성 해외 거래처 발굴 및 거래알선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단편적인 진출 지원에서 벗어나 검증된 현지 기업인 및 과학기술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사업 제휴 및 협력을 지원하고, 상품 및 기술정보도 상호 교환하는 정보화 기반의 실질적인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표 1〉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정보 서비스 현황

구분	e-Trade Pioneer	e-무역상사	KOTRA 해외진출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요	EC21이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중소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On/Off-Line 통합지원서비스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이 필요한 무역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On/Off-Line 통합 지원서비스	해외투자 기업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관련 정보 제공
주요 서비스	상품 카달로그 제작, 상품홍보, 바이어와의 거래제서 작성	바이어 발굴, 무역업무 대행, 해외시장 정보 제공, 무역절차 지원(1년간)	세계 180개국의 경제, 무역 및 투자 관련 정보와 상거래 체크 포인트, 현지 히트상품 현황, 진출사례, 수입규제 등 정보 제공

〈표 2〉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정보 서비스의 외국사례

구분	일본 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일본 Green-Net	영국 BTI (British Trade International)	벨기에 BFTB (Belgium Foreign Trade Board)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경제동향 조사, 정보수집 및 제공 • 개도국의 수출산업 육성 및 공업화 지원 • 무역·투자의 상호 증진과 협력을 모토로 해외 투자와 수출확대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전문 검색서비스 제공 • 특허정보를 정부와 대학 등과 연계하여 산업체와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시장별 비즈니스 분야별 정보제공 • 수출 및 투자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one-stop 서비스 지원 • 해외투자 진출 및 시장 개척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 수출대상국 업체 정보를 update 및 제공 • 주요 각국에 Trade Point를 두고 연결하는 Trade Lead시스템을 제공

II.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마케팅 관련 정보 및 서비스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외국 사례는 〈표 2〉와 같다.

국내 e-TradePioneer, e-무역상사 등 무역 포털사이트와 KOTRA의 해외진출정보시스템에서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CP)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대부분의 해외 사례는 민·관·학이 연계하고, 해외 민간 정보망을 구축, 활용하여 자국의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대한 contents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방식 체계도 one-stop 방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에 맞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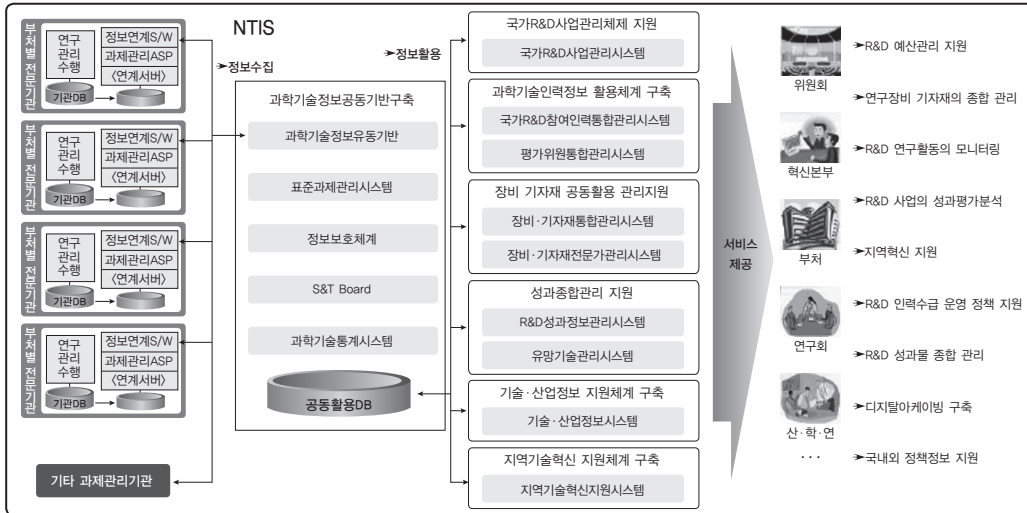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 R&D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은 국가의 종합관리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 13개 부처·청과 연

계한 R&D 종합 및 정보유통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용 대상은 일반 국민, 각 정부부처, 연구관리 기관 등이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이용대상을 별도 관리하여 서비스하고 2009년까지 서비스 가능한 총 목표 DB는 584,776건으로 추정되며, 2008년 1월 현재 R&D 연구사업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정보가 315,377건 구축, 서비스되고 있다(〈그림 1〉 참조).

또 하나는 한국기술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정보 DB로 국내외 대학,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기술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된 기술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술등록회사 및 개발자 정보, 기술의 개요 및 특징, 특허 등 재산권 정보, 기술개발 상태 및 이전 조건, 국내외 기술동향 및 시장동향, 기술의 우수성, 완성도 및 활용도,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필요 조건 등을 제공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 시스템에는 기술보증 기금, 산업은행 등 기술평가기관 전문가와 대학 연구소 및 기업체 등 2,700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R&D 기술관리 및 이전·실용화 체계는 미국·일본 등 민간기업 중심의 자율 지향형과 독일과 같은 공공기관

[그림 1] NTIS의 서비스 개념도



중심의 기술이전 중개체계 구축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기술이전 및 실용화 활동을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고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등 한정된 지원만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Steinbeis라는 기술이전 중개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의 이전과 실용화된 사업의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R&D 관련 정보시스템 측면에서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이나 한국기술거래소 국가 기술이전 정보 DB(NTB)는 종합적인 R&D 정보 유통 시스템으로 구축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소 벤처기업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기술수요와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실질적인 사업화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미국, 일본은 중소기업 관련 R&D 법률을 정비, 민간이 주도가 되어 효율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중소 벤처기업에 효과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술지도, 기술정보

제공, 산·학·연 연계 지원, 자금 지원, 마케팅 활동 지원하였고, 독일은 Steinbeis를 통해 산학연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마케팅 활동 지원의 모범적인 Prototype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중복, 유사한 정보서비스가 존재하였고, 이 또한 사용자의 정보접근이 쉽지 않고 정보 검색에도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제공자(Contents Provider)의 부재를 의미하며, 이들 사이트의 정보를 정보 수요자에 맞게 재가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 제공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e-Trade Pioneer나 e-무역상사 등과 같은 중소·벤처기업 대상 수출지원 정보사이트도 거래처 알선과 상품 홍보, 무역업무 대행과 같은

〈표 3〉 선진국의 기술이전·실용화 지원체계

구분	미국	일본	독일
역할분담 체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분담체계를 갖추고 있음. 민간컨설턴트 중심으로 기술이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	기업간 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기업간 기술이전이 수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전통적으로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도 잘 이루어지고 있음
법·제도	Bayh-Dole Act(1980), Stevenson-Wydler Act(1980),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1980)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화	과학기술기본법(1995), 대학 등 기술이전촉진법(1998),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1999), 산업기술력 강화법(2000) 등을 연속하여 제정	
사업추진	1989년 NTTC를 설립하고 1992년 1월에 6개 지역에 RTTC를 설립, NASA를 비롯한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이룩한 R&D 결과에 대한 DB를 구축,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기술평가, 산업체로의 이전 및 상업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년에 설립된 (재)일본산업기술진흥협회(JITA)가 과학기술 지식과 연구결과 보급, 기술이전 업무 수행 • 1996년 10월 발족된 일본 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은 연구결과 종합 DB인 J-STORE 시스템을 구축 • (재)일본입지센터(JILC) 테크노마트가 기술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관리, 제공과 기술정보의 이용에 관한 연구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간의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이전기구로서 슈타인바이스 재단이 전국망 내지 세계망을 구축, 기술이전 및 실용화와 관련된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 • 베를린 산하의 베를린 과학기술 도시(WISTA)는 기존의 Science Park 개념을 초월한 대규모 연구, 교육 및 벤처기업 창출을 지향하는 21세기 유럽최대의 연구 및 기술지역을 지향하고 있음 • 1991년 9월에 설립된 기술혁신 보육센터(IGZ)는 WISTA의 일부 기능을 위탁받아 신규 창업자를 위해 기술혁신과 창업보육 기능을 함께 갖고 지원하고 있음

업무를 지원하지만, 주로 일회성으로 그쳐 일본 JETRO나 영국 BT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실제적인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은 미비하고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상품 개발환경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계속적인 기술 개발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거래 관련 정보시스템들은 기술공급자 위주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기술수요와 정보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업화에도 매우 미흡하며 또한 현재의 기술거래 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기술정보 제공, 기술이전 양허, 기술지도 및 자문, 자금지원 등 각각 기능적 측면에서 지원하였기 때문에 사업화 이후 단계

에서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과 연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III. 해결방안

해결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One-stop 지원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해외진출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이 해외 마케팅 역량 부족과 해외 시장정보 부족인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단순 해외 정보 제공이나 거래알선 기능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정보시스템과 달리 서비스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해외 마케팅 촉진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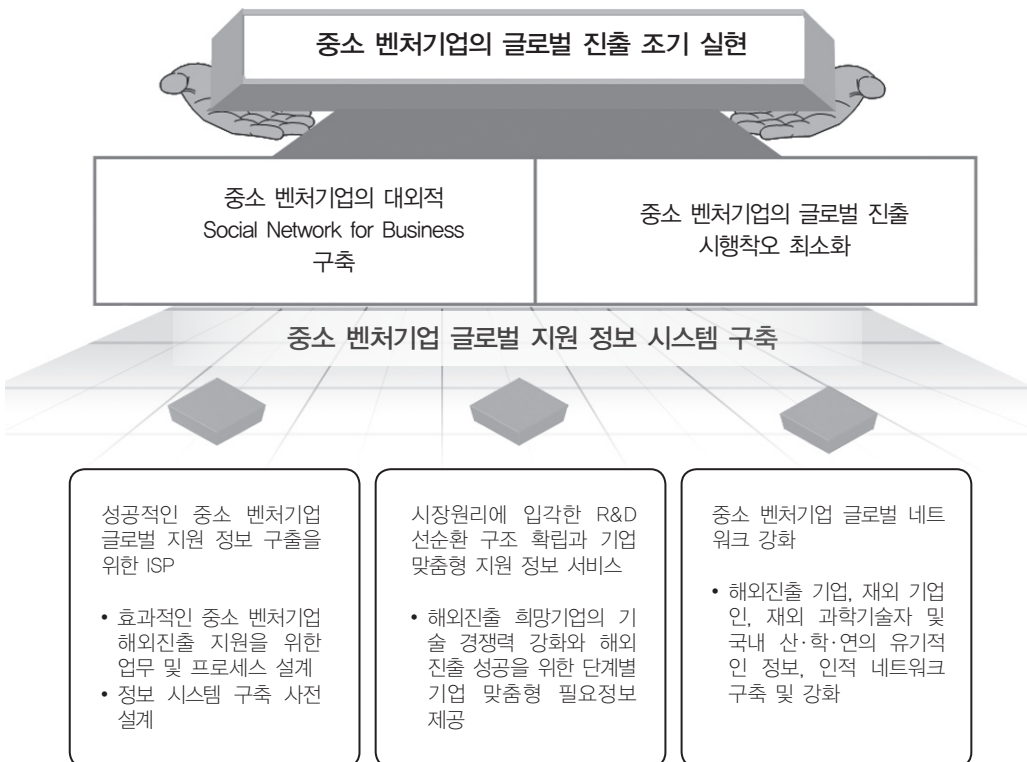
홍보와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한 검증된 현지 거래선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 등 일련의 해외 마케팅 지원활동을 On-Line/Off-Line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의 산·학·연 유기적 연계 마케팅과 기술거래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한데 독일의 Steinbeis 재단과 같이 민간 주도형으로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필요한 기술의 신속한 공급과 사업화 및 국내외 마케팅 활동 등을 포괄하여 전담,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외 한인 기업인과 과학기술인과 중소 벤

처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 정보 교환과 제휴 사업 발굴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인적 정보 네트워크도 강화되어야 한다.

글로벌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절차 검토와 향후 발전 방안 수립하고 관련 해외사례 정보 분석을 통한 국내외 관련 정부·산업계·연구기관 간 유기적 업무·정보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대외(기술, 상품) 경쟁력 향상과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 통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장 기반형'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수요자인 기업(산)과 기술공급자



인 대학교 및 연구기관(학·연)간을 연결하여 「기술수요 발굴 → 연구개발(기술혁신) → 기술 이전 → 사업화」의 R&D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가 해외 마케팅 강화와 연계되어야 한다.

IV. 맺으며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관련 산·학·관·연 정보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종합 지원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과 재외 기업인, 과학기술자 DB 구축으로 재외 한인과 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기술수요에 적합한 최적 기술 탐색 → 사업화 → Funding →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사업 및 기술 개발 파트너를 matching하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결국, 국내 중소기업과 재외기업인, 과학자간 지속적인 Social Network 강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안정화에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1), 「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실태조사 결과」.